

번역자의 편집인 역할

유 영 난
(번역가, 영문학자)

번역자는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편집자 노릇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루는 두 언어의 체계와 문화가 상이한 영어와 한국어인 경우, 손을 대야 할 범주는 엄청나게 크다. 편집의 분야는 언어구조상의 차이에서 오는 것에서부터 문화적인 것까지 이른다. 우리는 번역문을 읽으며 흔히 “너무 번역 냄새가 난다” 또는 “어색하다”는 평을 하는데 이것을 번역자가 매끄러운 언어로 다듬는 편집 작업을 소홀히 했다는 뜻이라고 본다. 가장 흔히 보는 꼴끼러운 번역체 문장은 우리말로 옮길 경우, 꼬박꼬박 영어식으로 주어를 넣어 준다든지, 소유격을 그대로 번역한다든지, 복수를 남용해서 생기는 데, 예를 들어 우리는 “그는 그의 윗도리를 벗어서 그의 옷들이 많이 걸려있는 옷장에 걸었다”는 식의 문장을 심심찮게 만나게 된다.

편집자 역할을 어느 정도 해야 하는가는 번역자의 언어 감각뿐 아니라, 독자를 누구로 생각하고 번역하는가에 따라 의견이 구구할 수 있다. 똑같은 작품을 시대에 따라 다시 번역하는 것은 언어감각이 변하기 때문이다. 또한 번역자는 번역을 하면서 항상 미지의 독자를 염두에 두게 된다. 우리말을 영어로 번역하는 필자의 경우 자주 자문하게 되는 질문이 “누가 내 독자인가”이다.

문학번역을 할 때 염두에 있는 독자는 누구인가? 내가 상상하는 독자는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으로서 한국에 대해 약간의 지식이 있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그 이유는 고등교육을 받지 않고 한국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은 우리문학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으리라는 가정인데, 이것은 지금까지 번역작업을 하면서 만나 본 많은 사람들을 통해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번역자로서 편집자의 역할은 어렵고 또 어렵다. 내 희망은 그저 독자들이 짜증내지 않을 정도, 잘 읽힐 수 있는 정도의 번역문을 만드는 것인데, 얼마전 한 비평가가 미국에서 출판된 필자의 번역소설에 대해 “very readable”이라는 평을 해주어, 최상의 찬사라고 만족해 한 적이 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번역자로서 더 이상의 찬사는 바랄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편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믿을 수 있는 원어민과의 공역을 원칙으로 한다. 보통 서너 번씩 서로 의견을 교환해 가며 원고를 만드는데, 더욱 정교한 편집 작업을 하기 위해 일단 원고가 준비된 후 5~10명 정도의 원어민 독자를 고용해 의견을 수집한다. 그 사람들은 학력, 나이, 성별, 직업, 고향에 따라 다른 의견을 제공하는데, 그 사람들의 의견을 번역문에 반영하

고 있다. 너무 미국적이거나, 특정한 연령층이 즐겨 쓰는 표현을 버리고, 폭넓은 독자들이 곁끄러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번역문을 만들려는 목적에 적합한 방법이 기 때문이다. “너무 60년대식 표현이다” 또는 “주인공이 쓸만한 표현이 아니다”라는 반응을 접할 때도 있다. 한 번은 필자가 번역한 역사소설을 읽은 영국인 여성독자가 “여보”를 “darling”이라고 번역한데 대해 그 단어는 영국의 상류층에 국한된 느낌을 준다며 “my love”를 대안으로 내 놓았다. 보편적으로 영어권의 독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번역문을 만드는 것이 번역자로서의 최상 목표이다.

이 자리에서는 우리말을 영어로 번역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느끼는 문제점과 나름대로 사용하고 있는 해결책을 다루기로 하겠다.

1. 단어수준의 문제들

가장 자주 접하는 문제가 대명사의 문제이다. 우리 글에서는 대명사를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여간 신경을 쓰지 않고는 단어가 되풀이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그는 국립도서관에 들어갔다. 세시간 후 국립도서관을 나올 때는 ….”라는 부분을 번역한다고 할 때, 두 번째 국립도서관을 그냥 도서관이라고 번역하든지, 대명사로 처리해야 하는데, 우리말에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현상이라서 일일이 신경을 못써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지적해 주는 부분이 대명사의 사용이다.

주어가 원문에서 빠져 있는 경우, 삽입을 해 주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대명사나 주어의 문제는 단순히 해결할 수 있는 반면, 가장 심각한 것은 똑같은 단어를 거침없이 연이어 쓰는 우리 작가들의 특성이다. 영어에서는 동의어를 사용하는 것이 관행인데, 문제는 문학작품의 경우 어디까지가 작가의 의도인지, 어느 정도가 작가의 게으름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한번은 어느 작가에게 이 문제를 지적하자, 정색을 하고 문학적인 효과를 위해 썼다고 했지만 역자로서 수궁하기 어려웠고, 독자들 도 뭐 이런 게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려 아예 빼 버리거나, 동의어를 바꾸기도 했는데, 과연 편집자 노릇을 잘한 것인지 자신이 없었다.

세 번째 문제는 상투어이다. “계기”라든지 “... 등”이라든지 흔히 쓰이는 우리말 표현들은 번역자가 의식적으로 다루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 애매하거나 어색한 표현이 되기 쉽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적절한 단어를 표적어에서 찾아내는 일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말처럼 간단하지 않다. “환쟁이”를 “painter”라고 번역했더니, 왜 그렇게 했느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다. 사실은 처음에 환쟁이를 더욱 가까운 의미를 지닌 “dauber”로 번역했더니, 대부분의 영어권 독자가 모르는 단어라고 불평했다. 의미상으로 근접한 단어라도 언어사용자들의 친숙도가 떨어지면 사용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

2. 구절 및 문장 수준의 문제점

많은 한국작가들이 똑같은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우리말로 읽을 때는 되풀이되는 표현이 오히려 안정감을 줄 수도 있는데, 똑같은 표현이 자주 쓰일 경우 - 예를 들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라는 표현이 몇 페이지 사이에 열댓 번 나올 때 - 역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주로 문장 전체를 빼 버리는 일이 많은데, 경제적인 영어문장에 익숙한 독자들이 견뎌 내지 못하고 책을 던져 버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말에서는 명백한 문제가 번역문에서는 불확실해지는 경우가 있다. 주로 대화에서 생기는 문제인데, 원문에서는 사투리나 존대의 정도로 누가 하는 말인지 확실하지만 번역문에서는 누구의 말인지 삽입을 해 줘야 할 때가 많다.

사투리 문제도 번역자들이 가장 골치 썩이는 분야이다. 혹자는 전라도 사투리 또는 경상도 사투리를 미국의 남부 사투리, 혹은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의 사투리로 쓰기도 하는데 그것은 지나친 번역이라고 생각된다. 결국은 사투리를 무시할 것이냐, 다른 의미가 함축된 사투리로 번역할 것이냐는 선택을 해야 하는데, 나는 무시하는 쪽을 택한다. 전라도 사투리를 쓴다고 무식하다고 볼 수 없으며, 그렇다면 평안도 사투리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사투리로 생생하던 원문이 몇대가리 없는 번역문으로 변하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프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3. 전체 흐름 수준의 문제점

가장 혼란의 문제는 편집이 제대로 안된 원문 때문에 번역자가 해결사로 나서야 하는 경우이다. 편집을 소홀히 여기는 우리 출판풍토 때문에 작가보다도 더 꼼꼼히 원문을 읽어야 하는 번역자는 여간 곤혹스러운 게 아니다. 일반 독자는 못보고 넘어가겠지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종종 눈에 띈다. 가능하면 작가에게 문의하여 일관성 있게 고친다. 가장 심한 경우, 어느 소설에서는 주인공의 아이들 숫자가 변했다. 옛날에 쓴 신문소설이라 그랬겠지만 고인이 된 작가에게 문의할 수도 없어 슬그머니 아이들에 대한 첫 부분을 삭제해 버렸다. 미국 출판사에서 어느 독자를 고용하여 번역문과 원문을 읽혔는데, 그 독자가 신랄하게 한 말: “충실하게 번역하지 않았다. 왜 이 부분은 빼 버렸는가?” 그 독자는 전체적으로 더욱 충실하게 번역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며, 친절하게도 첫 페이지를 “충실하게” 번역한 다음 내 번역과 비교해 보라고 보내 왔다. 그 독자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영어로 어색하지 않게 흐르는 번역문을 만드느라 여러 영어권 나라의 독자를 일곱 명 고용하여 2년여에 걸쳐 번역문을 다듬었다는 점이다. 어색하지 않게 술술 흐르는 번역문을 만들려고 삭제한 부분, 덧붙인 부분, 문장을 나누거나 붙인 부분 등이 수도 없이 많았다. 몇 년에 걸친 노고를 단시간에 “충실하게” 고친 그 독자의 자신만만함에는 손을 들 수밖에 없었다. 구구절절 설명

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그 출판사와는 출판을 포기했다. 그 독자도 번역자일텐데, 그 사람과 나의 번역철학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나는 항상 너무 지나치게 편집자 노릇을 했다는 평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반면, 너무 편집을 안 했다는 평을 듣기도 한다. 주로 글을 잘 쓰는 원어민들이 주는 충고이다. 어느 정도까지 손을 대서 매끄럽게 만들어야 하는가는 번역자로서 항상 자문하는 부분이다. 번역자가 아닌 순수한 편집자라면 인정사정 없이 잘라 버릴 군더더기도 번역자이기 때문에 “너무 손대는 게 아닌가”하는 조심스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 내가 고용하는 독자들 중에는 최근 미국내의 글쓰기 경향에 따라 수동태는 모두 능동태로 고치고, 군더더기는 모두 없애라는 과격한 제안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결국은 원작의 어조를 살리면서도 “도저히 읽을 수 없는” 정도가 되지 않게 만드는 것은 역자의 책임이다.

4. 문화적 문제점

얼른 생각나는 것이 나이의 문제이다. 우리 나이로 여섯 살이면 만 네 살이나 다섯 살인데 특히 나이가 어린 경우, 한 살이라는 나이가 성장 면에서 큰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의미전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경우, 그냥 여섯 살이라고 번역하지 않는다. 다섯 살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새해에 들어 여섯이 되었다”라는 식의 사족을 달아 준다.

두 번째 문제는 고유명사 번역이다. 얼마 전 수많은 궁궐의 건물과 문들이 나오는 소설을 번역했는데, 아주 잘 알려진 것 아니고는 한자 뜻에 따라 의역을 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데, 한 미국인 역자는 과연 한국인은 그 뜻을 일일이 알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예를 들어 광화문이라면 그 뜻을 새기면서 사용하느냐며 과대 번역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마침 그 자리에는 한국문학을 공부하는 외국인들이 몇 명 있었는데, 모두 한국어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 나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한국인이라면 일일이 정확한 뜻은 몰라도 대강 그게 문이지, 건물인지는 알기 때문이었다. 그 후 그 중 한 명이 번역문을 읽고, 의역한 것이 나왔다고 의견을 바꾸었는데, 그 이유는 소설의 특성상, 한국학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일반인을 독자로 생각하는 편이 낫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삼국유사』, 『동의보감』 등의 책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조선 왕조의 직급은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우선은 학자들 사이에서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있는지 알아보고 없는 경우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뜻을 번역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책 등을 참고로 해서 표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세 번째는 속담이나 자주 쓰는 표현의 번역이다. 개인적으로는 번역문을 읽을 때 너무 문화색이 강한 표현을 보면 거부감을 느낀다. 예를 들어 외국소설을 한글로 읽으면서 너무 토속적인 표현을 보게 되면 지나친 번역이라는 느낌이 든다. 한번은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렸다”라는 것을 그대로 번역해 놓았더니 모든 독자가 그 옆에 의문 부호를 그려 놓았다. 할 수 없이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리듯 허사가 되었다.”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라는 표현은 “하필이면 친구를 찾아갔더니 장날이라 집을 비운 때처럼”으로 번역을 해야 했다. “솔뚜껑보고 놀랜 가슴 자라 보고 놀랜다”는 비슷한 영어속담으로 바꾸었다. 또 다른 예는 “상을 박차고 일어났다”라는 표현을 “상을 발로 차고”라고 번역해 놓고 보니 어쩐지 주인공의 행동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다. 작가에게 문의한 후 “상을 밀치고”라고 표현했다.

“상”이라는 말에서 연상되는 것이 있는데, 한번은 한국에 대해 전혀 모르는 독자가 상을 “table”이라고 한 번역에 대해 어떻게 식탁을 번쩍 들고 다니느냐는 질문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다리 달린 쟁반”정도로 번역하고 있다.

또 다른 문화적인 문제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주석을 달든지 별도의 단어 설명을 넣어 주는 데,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김치”도 설명을 할 것인가, “온돌”은 주석으로 뺄 것인가, 아니면 문장 안에 약간의 설명을 붙이는 것으로 만족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5. 인용문의 기원 찾기

번역을 하다 보면 영어에서 번역된 인용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처칠이 이런 말을 했다 라고 하면, 임의로 번역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수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원전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한번은 성경구절이 인용되어 있었는데, 작가에게 문의하니 어디서 발췌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읊기인 듯 해서 전부 훑었지만 찾지 못하고 선교사로 한국에 온 미국인에게 물었다. 그 사람도 잘 모르겠다고 하며 며칠 걸려 인용사전을 찾아 해결해 주었다. 번역을 하다 보면 번역자체보다 이런 일에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 불만스런 생각이 들 때도 종종 있다.

6. 좋은 편집자는 어떤 사람인가?

지금까지 역자의 편집자 노릇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런데 좋은 편집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점은 꼼꼼히 번역문을 읽고 또 읽되 시간의 간격을 두고 되풀이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못 잡아낸 문제점도 6개월 이후에는 잡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항상 느끼는 것은 편집이란 끝이 없다는 점이다. 책으로 나온 후에도 더 좋은 표현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어느 번역전문 단체의 내부지침 중 “번역인으로 발전하기”라는 글의 일부를 인용하겠다.

“번역자는 학교 공부나 학위로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평생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작업이다. 항상 관련 자료를 읽어 용어에 익숙해져야 하고, 참고서적을 이용하거나 인터넷을 찾아 정확한 지명과 이름을 찾아내어 표준화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소홀히 해서 역자 마음대로 번역하지 않고 표준화된 영어명이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단체의 이름인 경우, 직접 그 단체에 전화해 영어명이 있는지 문의하기도 한다. 우리말에서 흔히 쓰는 중국지명이나 인명의 경우 중국어 사전을 사용해서 원음을 찾아 써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표준적으로 쓰는 용어를 찾기 위해서는 참고서적을 이용하거나, 전문가에게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나 그러한 참고 자료를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 번역의 질이 달라지는 데, 역자가 수행하는 편집 역할의 일부분이다.

많은 사람들이 번역자의 이런 수고를 하잘 것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가끔 논문번역을 하다가 작가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못 썼다”거나 “아, 그건 오자군요”라는 변명을 한다는 점이다. 그 글이 번역용으로 쓴 것이라면 누군가가 오자 하나를 해결하려고 수많은 사전을 찾으며 시간 낭비한다는 것을 알고, 아무리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변명을 늘어놓을 글은 넘기지 말아 주었으면 한다. 한번은 글에 문제가 있어 번역을 절반 정도 하다 작자에게 전화하니, 그렇지 않아도 마음에 안들던 판이니 다시 쓰겠다고 해서 그때까지의 수고가 허사가 된 적도 있었다.

좋은 편집인이 되려면, 작가와 긴밀한 연락을 취해 진의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참고서적 등을 잘 갖추고 있어야 한다. 나는 의학사전, 경제용어사전, 식물사전 등 많은 사전을 가지고 있고, 자주 인터넷에 들어가 검색한다. 그러나 가장 훌륭한 보고는 인적자원이다. 최근에 독일인 이름의 스펠링을 알아보려고 독일어를 전공한 친구에게 전화한 적이 있었고 경제학 용어를 확인하려 경제학자에게 전화도 했다. 가장 짧은 시간에 정확한 정보를 얻는 길은 이렇게 전문가를 찾는 길이다.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은 사람이 영어로 번역하기 위해 의존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편집부분을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데, 이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외국에서 출판한 책을 보면 비록 전문가가 모국어로 썼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문장의 흐름에 도움을 주었다고 고마움을 표한다. 한국계 미국인들이 쓴 소설의 경우, 한국인이 미리 읽었더라면 잡아낼 수 있는 실수가 눈에 띄어 안타까운 경우가 있다. 어느 한국계 소설가는 1940년대 서울의 한 부잣집에서 피서를 가며 가구에 흰 천을 씌워놓는 장면을 묘사했다. 한국사람이라면 누구나 작가가 외국영화의 한 장면을 그대로 한국 풍경에 덮어 씌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사소한 실수가 옥의 티가 되어 작품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번역인의 편집 역할은 그러한 실수를 최대한 줄여 거부감을 주지 않는 매끄러운 작품을 만드는 것이라고 믿는다.